

“다문화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요”

전주청소년회의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신청자에게 가족사진 촬영권 전달

전주청소년회의소가 고국을 찾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족사진 촬영권을 선물했다. 청년회의소는 5일 전주시에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고향나들이를 다녀올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가족사진 촬영권과 액자세트 58매 등 14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순중 부시장과 한재덕 전주청년회의소 회장 고향나들이 방문 가족 대표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소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한 나눔실천 행사를 추진해온 전주청년회의소는 올해 고향 나들이를 떠나는 다문화가족 58세대를 추천받아 고향집에 선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가족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회의소는 이번 행사를 위해 회원들과 스튜디오희감 전주점(대표 정상문)의 후원을 받았다.

한재덕 전주청년회의소 회장은 “전주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청년들의 자기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며 “올해는 회복한 다문화가족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가족사진 촬영권 지원 사업은 물론 7월 중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청와대 견학 등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가족사진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회의소는 5일 전주시에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고향나들이를 다녀오게 된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가족사진 촬영권과 액자세트 58매 등 14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쉽게 접해지지 않는 사항인데 전주청년회의소 한 주역을 만들어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덕 회장과 회원들께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뜻깊은 /채규남기자



완주경찰서, 다문화 운전면허 교실 개강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5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결혼이주여성 2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운전면허 교실을 개강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와 협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늘 5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8주 동안 진행되며 전문 자동차전문학원 강사를 초빙 체류 외국인들이 운전 면허 취득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필기시험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한다.

특히 한국어 교재와 함께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모국 언어 교재를 동시에 제공하여 문제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완주경찰서장은 “경찰 주도 하에 운영되는 다문화 운전면허교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긍심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속적으로 운영 될 운전면허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달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기자

순창경찰서, 교통안전 홍보교육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에서는 지난 4일 순창읍사무소에서 이장단 및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교통범죄금 인상 관련 SNS상 루머 사실관계와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내 교통사고 현황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납세과출소에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 스피스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마을 이장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교통범죄금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을 겪었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해줘 사실이 확인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도로교통법의 바뀐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말했다.

/순창=이왕희기자



무주군 노인대학 입학식... 10월까지 노후생활 필요한 교양강좌

제17기 무주군 노인대학(학장 박만술)이 5일 개강했다. 이날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입학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이용석 무주읍분회장의 노인강령 낭독, 학사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학창생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꽃 피는 봄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강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여생을 보람 있게 즐기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천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10월까지 7개월 간(매주 목요일 11:00~15:00)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건강상식, 노후생활에 필요한 교양강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등 취미생활과 건강증진(생활체조)을 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3기 사회복지대학 입학식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는 5일 2018년 제3기 사회복지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생 40명과 이항로 진안군수, 박명석 군의장과 협의회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 전반적인 개념 이해와 복지현장 탐방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복지 마인드를 형성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정립하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수업이다.

학사일정은 4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8월 16일 졸업식까지 매주 목요일 20주 차로 진행된다.

수강과목은 복지와 경제, 사회복지현장 실천사례, 건강과 복지, 사회복지 현장 체험, 웰딩, 지역복지탐방,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수업으로 이뤄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벌채·안전교육

진안군은 지난 4일 진안군산림조합과 산림경영기술자, 벌채업종사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벌채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 벌채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 할 때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수목이 사라진 산이 일시에 드러나지 않고 산림생태계와 경관파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ha당 평균 굵기보다 큰 나무를 일정분 이상 무리지어 남겨 놓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벌채업 종사자에게 친환경 벌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임업기능인훈련원 최일훈 과장의 유형별 사례중심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해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서, 내부고객 보호 위한 소통 동행 내실 추진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 간 공생생활에서 오는 각 종 고민사항 뿐만 아니라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하고 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프로그램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김지연 경사는 “청문감사실이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법을 모색 제시해주고 말 그대로 내부고객 보호에 힘써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직원들 개인적 애환이나 고민거리가 잘 해소될 때 결국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이어줄 수 있다고 믿고 동료 간 관심과 따스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